

고등교육 종료 후 교육지속성을 결정하는 배경요인 탐색

김 은 주*·이 기 중**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교육지속성에 따른 과잉학력화 현상의 특징을 명확하게 하고 교육지속성을 보이는 이들이 학문적 탐구열정에서인지 또 다른 요인이 있는지 살펴보는 데서 출발한다. 연구문제는 고등교육 종료 후 교육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요인을 탐색하고, 교육지속성 여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모형을 탐색하는 것이다. 교육지속성을 결정짓는 배경변수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대학원 진학과 미진학의 종속변수와 다양한 독립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주어진 독립변수의 수준에서 종속변수인 대학원 진학과 미진학을 예측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출생변수 중에서는 나이변수, 가족의 문화적 변수 중에서는 부의 학력수준, 가족의 경제적 배경변수 중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수준에 대한 인식이 교육지속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1. 연구배경과 목적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고학력 청년실업률이 높다는 것이다. 고학력 청년실업과 취업의 문제는 고용 없는 성장으로 대표되는 산업구조의 변화에서 비롯된다. 고용시장에서는 신입직 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구조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기업의 채용방식 변화는 고학력 노동력의 수급불균형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대졸자들이 취업하기까지 걸리는 직업탐색기간이 예전보다 오래 소요되고 있고, 더불어 대학편입 및 대학원 진학률이 급속히 높아졌다. 일반적으로 높은 학력을 위해 진학하려고 하는 경향은 어느 나라에서나 범문화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대학원에 진학하여 장기간에 걸쳐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 국민대학교 교육연구소 전임연구원 iris@kookmin.ac.kr

** 국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rhee0408@kookmin.ac.kr

이러한 고학력주의는 근대사회의 공통적 특징이며, 일반적으로 실업률이 높은 개발도상국에서 보이는 현상이다. Dore(1973)는 각국의 사례를 자료로 개발도상국의 학력획득 현상이 직업획득에서 기인한 것이며 이러한 현상을 학력집착증(Diploma Disease)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사회가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높으면 조금이라도 높은 취직 기회를 가지려고 형식만의 학력을 취득하려고 한다는 학설이다.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자유롭게 교육을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언젠가 사회에 나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개개인에게 부여되는 과제이며, 교육투자의 시점에서 생각하면 받은 교육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개인으로서도 사회로서도 효율적 투자가 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가도 현실 사회에는 그 만큼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한 실정이며 고학력자의 하향취업과 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다.

박성준(2005)의 연구에서는 학력을 낮춰 취업한 경우가 2002년 기준으로 29.1%였다고 밝혔다. 박성준은 이런 취업자를 '학력과잉자'로 정의했고,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에는 학력과잉자가 18.9%였다. 그의 연구에서는 노동부의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1996, 2002년)와 '직업사전'에 따른 직업별 요구 학력을 대비해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15~30세 취업자로 96년 대상자는 9만5502명, 2002년은 9만7758명이었다. 남성들은 30.4%가 자기 학력보다 낮아도 들어갈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여성은 27.5%였다. 그렇지만 남성은 외환위기 이전에도 23.7%가 학력과잉자였으며, 이후 2.7%포인트 늘어난 반면 여성은 외환위기 이전 13.9%에서 13.6%포인트나 높아져서 여성의 학력 과잉이 훨씬 심화되었다.

직업의 학력 과잉이 심해지면서 학력 간 임금 격차가 크게 줄었다. 90년에는 고졸자에 비해 전문대졸자의 임금은 17.4%, 대졸자 임금은 85.6% 더 많았다. 그러나 이 격차가 점점 줄어 2001년에는 전문대졸자는 4.2%, 대졸자는 57.2% 높은 수준이 됐다. 학력 과잉은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전문기술직, 사무·판매직 등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생산직에선 학력과잉 문제가 외환위기 이전엔 크지 않았지만 2002년에는 크게 나타났다(박성준, 2005). 이것은 고졸 학력을 요구하는 생산직종에 고학력자가 몰려들면서 학력이 낮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현상을 초래했다. 또한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구직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도구로 학력을 이용하려는 추세가 강해져 상급학교 진학률이 높아지는 교육지속성을 보이고 있다.

고학력화와 관련된 연구에서의 통계자료를 보면 대졸자의 수는 1995년에서 2003년까지 18만 명(55.6%)이 증가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진학률은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여 고등교육의 대중화 단계에 진입했다(안주엽, 2001). 또한 1981년 대학 졸업정원제의 실시와 1995년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대학정원 자율화 정책은 대학 졸업자수의 급격한 증대를 가져온 정책적 계기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에는 대학진학자가 26.9%, 1990년대에는 33.2%였으나 2003년에는 79.7%를 기록하였다(이병희, 김주섭, 안주엽, 정진호, 남기곤, 류장수, 장수명, 최강식, 2005).

이러한 사회적 현실에서 교육지속에 대한 열망은 개인의 소득이나 직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성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사실과 연결된다. 사회에서 한 개인이 어느 학력에 속하는가에 따라 개인의 사회적 위상은 영향을 받게 된다. 학력이 중시됨에 따라

사람들은 자신이나 자신의 자식들에게 더 높은 학력을 물려주기 위하여 많은 희생을 감수해 오고 있다. 특히, 교육을 중시하는 유교적 전통관이 지배해온 한국사회에서의 고등교육은 경제적, 사회적 지위 상승에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간주되어 왔다. 이처럼 사회적 지위의 상승이나 좋은 직장, 좋은 처우를 받기 위한 사회 경제적 동기는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열망으로 표출된다.

Hanson(1994)는 성별에 따른 교육지속성의 차이를 연구한 결과 남학생이나 여학생 모두 고교시절 비슷한 수준의 교육지속성에 대한 포부를 가지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학생은 남학생 보다 교육지속성 포부의 상실을 빨리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교육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오성철(1989)의 연구에서는 지능, 사회적 배경, 성적 중에서 교육지속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성적으로 나타났다. 김기현(2004)의 연구에서는 교육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배경을 제안하였다. 분석결과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가족의 사회적 자본은 고등학교에서 상위단계인 대학교, 대학원으로 올라가면 감소하였으나 부모의 직업의 효과는 상위 단계로 올라가도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등학생의 교육지속성에 부모의 직업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논의 되었던 성별, 지능, 사회적 배경, 성적, 가족배경 등의 변수들과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고 있는 변수들 간의 관계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보는 데서 출발하고자 한다.

따라서 교육지속성에 따른 과잉학력화 현상의 특징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교육지속성을 보이는 이들이 학문적 탐구열정에서인지 또 다른 요인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들은 시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출신배경요인과 가족의 문화적, 경제적 배경요인으로 분석하고 이들 중 어떠한 요인이 교육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여 교육지속성을 통해 나타나는 고학력자의 실업을 해결하고 대학생들의 일자리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노동정책과 교육정책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고등교육 종료 후 교육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요인을 탐색하고, 교육지속성 여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모형은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과잉학력의 정의와 선행이론

과잉학력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들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의 과잉학력은 취업자의 직무내용과 비교하여 기술수준과 교육수준 모두가 과잉이거나 어느 하나라도 과잉인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Alba-Ramirez & Blazquez, 2003). Alba-Ramirez(2003)와 Blazquez(2003)의 연구에서 과잉학력이 기술과 교육 두 가지로 언급

되었듯이 고학력에서 불일치론과 관련하여 기술불일치와 교육불일치로 나뉘어진다. 기술불일치는 일자리가 요구하는 기술이나 기능수준이 맞지 않는 경우를 뜻하며, 교육불일치는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교육훈련의 수준과 취업자의 교육수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잉학력을 교육불일치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과잉학력에 대한 논란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이미 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과잉교육 여부를 밝히기 위해 Rumberger(1987), Tsang, Rumberger와 Levin(1991), Alba-Ramirez(1993) 등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들은 인적자본이론, 선별이론 그리고 직업경쟁이론 등의 경제학적 이론을 배경으로 과잉교육이 생산성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 교육투자수익률 추정 그리고 학력불일치의 규모, 학력불일치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 그 연구 범위를 더욱 확대하였다.

인적자본이론은 Becker(2003)에 의해 발전된 이론으로서 교육을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로 보는 관점을 가진다. 교육은 생산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생산성이 높은 교육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소득이 높다는 것으로 고학력은 고생산성을 가져오고 고생산성은 고소득의 효과를 가져 온다고 주장한다.

이와 반대 이론인 선별이론과 직무경쟁이론을 보면 선별이론은 교육이 노동시장에서 임금수준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이 노동력의 생산성을 높이게 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원래 생산성을 인정하는 학력이라는 자격증을 선호하게 되기 때문에 고학력이 발생된다고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직무경쟁이론은 개인들이 자신의 일 또는 구직에 있어서 경쟁상대자 보다 좋은 위치에 서기 위해 교육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이론으로 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를 놓고 노동자들이 서로 경쟁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다(김주섭, 2000). 이러한 이론들은 모두 과잉학력을 조장하는 원인을 잘 설명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어느 한 가지 이론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고 이러한 것이 적당히 조화되면서 사회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Rumberger의 연구(1987)는 미시건 대학에서 조사한 1,500명 미국근로자를 대상으로 인터뷰한 자료를 이용하여 생산성과 임금에 잉여학력이 미치는 영향을 임금방정식을 토대로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잉여학력이 늘어난 학력연수 만큼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함을 알려주고 있다. 자신의 학력과 직종에서 요구하는 학력이 일치한 사람의 수익이 일반적으로 표준적인 인적자본 모델을 이용하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가져오고 있으나 잉여학력자의 경우에는 요구학력자보다 낮은 보상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부가학력의 경우가 꼭 비생산적인 것도 아니며 다만 학교에서 근로자가 획득한 기술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Tsang 등의 연구(1991)는 직무와 학력 간 불일치가 작업장의 생산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가정 하에 1,50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학력과잉이 생산성 지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였다. 이 연구는 학력과잉의 측정방법과 학력과잉이 근로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실증적인 기법을 제시하였다. Alba-Ramirez(1993)의 연구는 학력불일치로 인한 직무불일치가 교육에 대한 투자수익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학

력과잉 근로자들이 어떻게 직무일치도를 높이기 위해 행동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내연구로 정태화(1994)의 연구에서는 대학졸업자 중 사무직을 대상으로 과잉교육에 대한 인식, 직업만족도와 직업 생활태도, 사회적 인식, 대학교육과 직업과의 관계인식에 대해서 분석하였는데 연령은 적을수록, 여성일수록 고학력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어수봉(1994)의 연구를 통해서도 교육지속성이 생산성 증가를 수반하지 못하는 상태를 낳고 있고 이는 교육의 낭비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상당수의 교육지속성을 갖는 고학력자가 자신의 교육수준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하향취업을 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김주섭(2000)의 연구에서는 고학력자들의 소득이 낮고 과소학력자들의 임금손실액이 가장 크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강순희, 박성재(2002)의 연구에서는 교육지속성을 중심으로 논의되진 않았지만 교육지속성으로 인한 고학력으로 직무불일치를 경험하고 있으며 20%가 하향취업을 하고 있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박천수(2005)의 연구에서는 고학력과 전공불일치, 기능과잉 모두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는데 임금손실에 있어서 기능과잉, 학력과잉, 전공불일치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병희(2005) 등은 교육과 노동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에서 고학력과 관련하여 대학의 과잉팽창과 과잉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문제 삼고 과잉학력여부와 직장만족도에 대해서 빈도분석 결과를 기술하고, 고학력 발생빈도의 결정요인을 찾는 분석을 통해 졸업여부, 고용형태, 사업체 규모에 따라 고학력을 일으킨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2. 교육지속성과 관련된 선행연구

교육지속성의 배경요인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것은 진학동기이론이다. 진학행동을 설명한 이론은 앞에서 언급한 Becker(2003)의 인적자본이론과 Spence(1973)의 시그널링(Signaling)이론이 있다. 이 이론에서 교육은 개인의 능력을 타인에게 알리는 '신호(시그널)'로 다뤄진다. 노동시장에서 기업은 취업 희망자 개개인의 실력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 그 때문에 구직자들은 자기가 얼마나 우수한지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교육이라는 것이다. Spence(1973)는 교육이 반드시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보지는 않았다. 일류대학이 일류인재를 키운다기보다 일류인재가 자신의 우수성을 시장에 알리기 위해 일류대학에 들어간다는 식의 주장이다. 즉, 교육은 개인이 노동시장에 보내는 신호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투자라고도 했다. 똑같은 직업훈련을 하면 혹시 대졸자보다 고졸자 쪽이 잘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하지만 훈련을 하기 전 단계에서 고용자가 구직자의 능력을 측정하지 않으면 안 될 때 잠재능력을 학력이 신호효과로써 발휘되는 것이다.

진학행동을 설명한 이론에서는 위의 인적자본이론과 시그널링이론은 경합하게 되어 있다. 인적자본이론에서는 교육을 부여하면 부여할수록 그 만큼 지식이나 기술이 향상되고 그 결과 생산성도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지속성과 교육성취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교육지속성으로 인해 교육성취도에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Karabel, 1972; Alexander & Eckland, 1975; Marini, 1978; Marini & Greenberger,

1978; Peng & Fetters, 1978; Randour, Srrasburg & Lipman-Blumen, 1982; Furlong, 1986; Dougherty, 1987; Ayalon & Yuchtman-Yaar, 1989; McClelland, 1990; Wilson & Boldizar, 1990; Bogenschneider & Steinberg, 1994; Kalmijn, 1994; Whitaker & Pascarella, 1994).

그러나 학생들이 교육을 더 받고자 열망한다고 해서 반드시 교육을 성취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곧 교육지속성과 교육을 성취하려는 실제적 계획 및 행동사이에 항상 일관된 모습을 발견할 수는 없다(Wegner & Sewell, 1970; Campbel, 1980; Sewell & Hauser, 1980; Randour, Strasburg & Lipman-Blumen, 1982; Dougherty, 1987; Hauser & Anderson, 1991; Levine & Havighurst, 1992; Lee, Mackie-Lewis & Marks, 1993; Hanson, 1994). 그에 대해 시그널링이론에서는 교육을 받기는 받지만 실제로 기술이나 지식을 증대시키지 않아도 학력 자체가 능력을 기대시키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장래의 구직자인 대졸자들은 강력한 신호효과를 갖고 있는 고학력을 획득하려고 교육지속성의 행동을 일으킨다고 보고 있다.

교육지속성을 결정하는 배경변수는 개인의 귀속적 사회심리적 배경과 재학하는 교육기관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교육지속성을 결정하는 과정과 수준은 개인 및 교육기관의 요인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활용가능한 자원의 차이와 사회구조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Wegner와 Sewell(1970)의 연구에서 학생들은 개인의 귀속적 배경변인의 영향을 받아 교육지속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귀속적 배경, 학문적 능력, 그리고 선호도에 따라 자신들의 개인배경을 인식하는 수준에서 교육지속성을 결정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육지속성을 결정하는 배경변인에는 귀속된 배경변인에 의해 교육지속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다양한 배경변인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지속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산업화이후 교육 불평등의 변화추이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대학 졸업 후 대학원 진학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몇 편에 불과하다(Stolzenberg, 1994). 그 중 각 교육단계별 진학에 미치는 가족배경의 영향중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각 교육단계별로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을 미치고 있다(Mare, 1980). Stolzenberg(1994)에 따르면, 대졸자들의 교육지속성은 가족배경과 관련성이 없으며 대학원 진학에 대한 열망은 부모의 영향 없이 대학에서 학생 스스로의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대학 졸업자들이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국내의 연구결과는 많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교육지속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유럽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이것은 대학교육의 부담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효과나 문제점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졌다. 영국의 노동시장에서의 교육지속성은 영속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는데 대학졸업 취업자의 50% 이상이 첫 직장에서 학력의 중요성을 경험하며 그 중 20%가 교육지속성의 상태였다는 결과가 나타났다(Dolton & Vignoles, 2000).

한국사회의 대학원 현황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대학원은 매우 빠르게 팽창해왔다. 한국에서 인구 1,000명당 대학원 학생 수는 4.99명으로 대학원 교육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미국의 6.57명보다는 적은 수치이지만 일본의 1.62명보다는 2배 이상 크다. 또한 한국의 고3학생들 중 20%가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의 고3학생들은 남학생

의 경우 9.7%, 여학생의 경우 4.8%만이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기현, 2004). 앞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수반되어 학력이 높은 사람, 능력이 좋은 사람이 노동시장에서 각광받는 시대가 아니라 기본적인 소양, 전문적 지식을 겸비한 사람이 노동시장에서 요구되어지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한 10차년도(2008년)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자료는 비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 구성원(5,000명 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활동에 관한 추적조사하는 종단면 조사이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1995년 인구주택 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전국 2만 1,675조사구)를 모집단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시 지역에서 추출한 5,000가구와 그 가구에 속해 있는 15세 이상의 인구를 그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선정된 분석자료는 전체 응답자 11,855명 중에서 분석대상 변수 중 한 경우라도 결측치가 있는 것을 제외하여 총 182명이다.

2. 분석에 사용된 변수

가.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응답자가 고등교육 즉, 2, 3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대학원에 진학했는지의 여부이다. 분석자료는 10차년도(2008년) 노동패널자료 중에서 학력을 묻는 문항에서 총 응답자 11,855명 중에서 4년제 대학과정까지 이수하고 졸업한 응답자 11,490명은 미진학자이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진학한 355명은 교육지속성을 보이고 있는 진학자이다. 이들 중 고등교육에 진입했거나 졸업한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판단하고, 대학원 교육에 진입했거나 졸업한 연령을 40세까지로 판단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20세 이하 응답자와 40세 이상 응답자와 관련된 변수를 제외하였다.

나. 독립변수

이 분석에 있어서 독립변수들은 10차년도 노동패널 자료 중에서 시간에 따라 달라지지 않

는 출신배경, 가족의 문화적 배경, 가족의 경제적 배경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출신배경에서는 성별, 나이, 형제 중의 위치를 선정하였다. 선행연구 중에서 장상수(2004)의 연구에서 가족배경이 교육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에서 성별이 의미있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장상수(2004)의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가족배경 변수 중에서 나이와 형제 중의 위치를 독립변수로 추가 선정하였다. 가족의 문화적 배경에서는 부모의 학력수준을 선정하였다. 이것은 Stolzenberg(1994)의 연구에서 대졸자들의 교육지속성에 부모의 학력수준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리의 교육 위주의 유교적 문화가치관에서는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교육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을 통해 부모의 학력수준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가족의 경제적 배경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선정하였다. Mare(1980)의 연구에서 교육단계별 진학에 미치는 가족배경의 영향중에서 사회경제적 특성은 각 교육단계별로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선정하게 되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고등교육 종료 후 대학원에 진학하는 교육지속성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출신배경, 가족의 문화적 배경, 가족의 경제적 배경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종속변수가 대학원 진학 미진학의 여부를 묻는 유목이 두 개인 이분 자료이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통계처리를 하였다. 분석을 통해 교육지속성 여부 즉, 대학원 진학과 미진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 교육지속성 여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모형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따라서 독립변수인 성별, 나이, 형제 중 위치, 부모의 학력수준,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사회경제적 지위수준에 대한 인식이 종속변수인 고등교육을 졸업한 후에 대학원 진학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교육지속성과 관련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먼저 종속변수인 교육지속성과 관련된 독립변수들의 기술통계 결과와 빈도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출신배경변수는 성별, 응답자의 나이, 형제 중위치이다. 가족의 문화적 배경 변수는 부모의 학력수준이며, 가족의 경제적 배경 변수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전반적 생활만족도이다. 교육지속성과 관련된 변수들의 기초통계자료를 <표 1>과 <표 2>에 제시하고 있다.

<표 1> 독립변수들의 기술통계량

| 독립변수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 만나이 | 30.40 | 5.54 | 20.00 | 40.00 |
| 형제 중 위치 | 1.93 | 1.15 | 1 | 7 |
| 부의 학력수준 | 3.84 | 1.43 | 1.00 | 8.00 |
| 모의 학력수준 | 3.85 | 1.19 | 2.00 | 8.00 |
| 사회경제적 지위 | 3.40 | .77 | 1.00 | 5.00 |
| 전반적 생활 만족도 | 2.78 | .84 | 1.00 | 9.00 |

<표 1>에서 보여지듯이 연구대상의 평균 만나는 약 30세이고, 형제 중 위치의 평균은 첫째를 나타내고 있다. 부와 모의 학력수준 평균은 고등학교 수준이다. 사회경제적 지위수준에 대한 평균인식은 중상정도를 나타내고,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평균은 만족정도를 나타낸다.

<표 2> 독립변수들의 빈도분석 결과

| 독립변수 | 구분 | 인원수(명) | 빈도수(%) |
|------|-----|--------|--------|
| 성별 | 남 | 88 | 48.4 |
| | 여 | 94 | 51.6 |
| 만나이 | 20세 | 1 | .5 |
| | 21세 | 5 | 2.7 |
| | 22세 | 5 | 2.7 |
| | 23세 | 7 | 3.8 |
| | 24세 | 6 | 3.3 |
| | 25세 | 15 | 8.2 |
| | 26세 | 20 | 11.0 |
| | 27세 | 9 | 4.9 |
| | 28세 | 13 | 7.1 |
| | 29세 | 7 | 3.8 |
| | 30세 | 9 | 4.9 |
| | 31세 | 12 | 6.6 |
| | 32세 | 7 | 3.8 |
| | 33세 | 9 | 4.9 |
| | 34세 | 8 | 4.4 |
| | 35세 | 6 | 3.3 |
| | 36세 | 4 | 2.2 |
| | 37세 | 9 | 4.9 |
| | 38세 | 10 | 5.5 |
| | 39세 | 13 | 7.1 |
| 40세 | 7 | 3.8 | |

<표 2> 독립변수들의 빈도분석 결과 - 계속

| 독립변수 | 구분 | 인원수(명) | 빈도수(%) |
|-----------|--------|--------|--------|
| 형제 중 위치 | 1 | 78 | 42.9 |
| | 2 | 69 | 37.9 |
| | 3 | 17 | 9.3 |
| | 4 | 9 | 4.9 |
| | 5 | 6 | 3.3 |
| | 6 | 2 | 1.1 |
| | 7 | 1 | .5 |
| 부의 학력수준 | 무학 | 1 | .5 |
| | 초등 | 32 | 17.6 |
| | 중등 | 46 | 25.3 |
| | 고등 | 60 | 33.0 |
| | 전문대 | 9 | 4.9 |
| | 4년제 대학 | 30 | 16.5 |
| | 잘 모르겠음 | 4 | 2.2 |
| 모의 학력수준 | 초등 | 18 | 9.9 |
| | 중등 | 47 | 25.8 |
| | 고등 | 86 | 47.3 |
| | 전문대 | 17 | 9.3 |
| | 4년제 대학 | 8 | 4.4 |
| | 잘 모르겠음 | 6 | 3.3 |
| 사회경제적 지위 | 상상 | 1 | .5 |
| | 상하 | 11 | 6.0 |
| | 중상 | 101 | 55.5 |
| | 중하 | 51 | 28.0 |
| | 하상 | 18 | 9.9 |
| 전반적 생활만족도 | 매우만족 | 1 | .5 |
| | 만족 | 56 | 30.8 |
| | 보통 | 116 | 63.7 |
| | 불만족 | 7 | 3.8 |
| | 무응답 | 2 | 1.1 |

교육지속성을 결정짓는 배경변수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대학원 진학과 미진학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주어진 독립변수의 수준에서 종속변수인 대학원 진학과 미진학을 예측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회귀모형계수의 적합성 검정

| | | 카이제곱 | 자유도 | 유의확률 |
|-----|----|-------|-----|------|
| 1단계 | 단계 | 42.36 | 7 | .000 |
| | 블록 | 42.36 | 7 | .000 |
| | 모형 | 42.36 | 7 | .000 |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카이제곱 통계값은 42.36, 유의확률 .000으로써 “모든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0이다.”라는 영가설이 기각되었으므로 $p < .05$ 수준에서 일곱 개의 변수 중 하나라도 유의한 변수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블록은 모형구축과정에서 로그가능도함수의 변화를 나타낸다. 위의 결과는 상수만을 포함하는 모형과 상수와 7개의 독립변수를 갖는 모형을 의미한다. 모형의 카이제곱값과 블록값은 동일하다. 여기서, 카이제곱 값은 42.36, 자유도는 7이고,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모형 종속변수의 분산을 1이라고 했을 때 Cox와 Snell의 R-제곱은 .28로 약 28% 정도의 설명력을 갖고 있고, Nagelkerke의 R-제곱은 .67로 약 67% 정도의 설명력을 갖고 있다. 이것은 회귀방정식에 들어있지 않은 제 3의 변수가 각각 72%, 33%를 설명하고 있다. 즉,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선정하지 않은 그 외의 변수들이 각각 72%와 33%의 설명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선정되지 않은 독립변수들에 대한 또 다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Cox와 Snell의 R-제곱과 Nagelkerke의 R-제곱은 로그가능도함수를 이용해 계산한 결정계수로 오차의 등분산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종속변수의 값에 따라 결정계수의 값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성별, 나이, 형제 중의 위치, 부의 학력수준, 모의 학력수준, 사회경제적 지위수준,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점수를 독립변수로 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및 집단 분류의 정확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모형검정 및 대학원 진학여부 분류의 정확도

| | | 예측치 | | | 정확도 |
|-----|-----|-----|-----|-----|------|
| | | 진학 | 미진학 | 전체 | |
| 관찰치 | 진학 | 4 | 10 | 14 | 28.6 |
| | 미진학 | 3 | 165 | 168 | 98.2 |
| | 전체 | 7 | 175 | 182 | 92.9 |

대학원 진학과 미진학에 대한 관찰치와 예측치 간의 차이를 보면 진학자의 경우 28.6%, 미진학자의 경우 전체의 98.2%가 정확히 분류되어 전체적으로는 92.9%의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다.

진학 미진학에 대한 개별 독립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대학원 진학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 회귀계수 | 표준오차 | Wald | 자유도 | 유의확률 | Exp(B) |
|------------|-------|------|------|-----|------|--------|
| 성별 | .51 | .78 | .42 | 1 | .515 | 1.66 |
| 나이 | .17 | .08 | 4.36 | 1 | .037 | 1.19 |
| 형제 중 위치 | .81 | .57 | 2.04 | 1 | .152 | 2.26 |
| 부의 학력 | -.67 | .25 | 7.14 | 1 | .008 | .51 |
| 모의 학력 | -.43 | .28 | 3.06 | 1 | .080 | .61 |
| 사회경제적 지위수준 | 2.04 | .68 | 9.02 | 1 | .003 | 7.75 |
| 전반적 생활만족도 | .64 | .62 | 1.08 | 1 | .298 | 1.90 |
| 상수 | -7.32 | 4.46 | 2.69 | 1 | .101 | .00 |

대학원 진학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독립변수의 회귀계수인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는 값인 Wald 통계량과 그것의 확률적 표시인 유의확률의 확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독립변수들 중에서 나이(Wald=4.36, p=.037)와 부의 학력(Wald=7.14, p=.008), 사회경제적 지위수준(Wald=9.02, p=.003)은 모두 p<.05에서 대학원 진학여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해 도출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text{Logit(진학)} = -7.32 + .17(\text{나이}) + -.67(\text{부의 학력}) + 2.04(\text{사회경제적 지위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회귀계수(B)는 다른 독립변수들의 값을 일정하게 하였을 때 독립변수의 값이 1단위 증가하면 대학원에 진학할 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보다 eB 만큼 증가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른 독립변수들의 점수가 동일하다고 할 때 각 독립변수에서 1점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은 대학원에 진학할 확률이 진학하지 않을 확률보다 나이에서는 e.17= 1.19배, 부의 학력에서는 e-.67= .51배, 사회경제적 지위수준에서는 e2.04= 7.75배 정도 높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대학졸업 후 교육지속성을 보이는 배경변인을 탐색하기 위해 출생변인과 가족의 문화적, 경제적 배경변인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출생변수인 성별, 나이, 형제 중의 위치 중에서 나이가 대학원 진학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출생변수인 성별, 나이, 형제 중의 위치 중 나이를 제외하고, 명확하게 교육지속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낮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장상수(2004)가 연구한 성별이 교육지속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상이한 연구결과의 도출은 연구대상 표집에서의 차이일 가능성과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일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가족의 문화적 배경변수인 부모의 학력수준은 부와 모의 학력수준 중에서 부의 학력수준만이 교육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tolzenberg(1994)의 연구에서는 대졸자들의 교육지속성에 부모의 학력수준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인의 학력수준이 실질적인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기보다 본인의 배경지위문화 또는 능력주의적 문화에 순응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더 많은 보상을 낳는다는 주장(Collins, 1971)과 관련성이 높다. 또한 핫토리 타미오(1988)가 한국의 학력간 임금격차와 계층격차를 학력신분제에서 기인한다는 주장과도 관련성이 있다. 가족의 경제적 배경변수인 사회경제적 지위수준에 대한 인식은 대학원 진학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좋은 직업을 갖게 되고 더 높은 소득과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된다는 유교에 의한 학문중시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고등교육을 마친 대학 졸업자들이 교육지속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나이, 부의 학력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통해 독립변수에서 제외되었던 또 다른 독립변수들은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나 모형에서는 영향을 주는 변수일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도 인식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교육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수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분석자료의 특성 상 표집대상이 모집단을 얼마만큼 대표하고 있는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지속성과 그 배경변인을 매개하는 매개변수를 완전하게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대학 졸업자들의 교육지속성과 관련하여 보다 세밀한 연구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순희, 박성재 (2002). 근로자 자율적 능력개발의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김기현 (2003). 한국 사회의 교육체계와 첫 일자리 진입.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김기현 (2004). 가족배경이 교육단계별 진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8(5), 109-142.
- 김주섭 (2000). 학력과잉과 노동시장 불균형 실태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성준 (2005).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분석. 정책보고 2005(2), 1-43.
- 박천수 (2004). 공공취업알선에서 온라인 이용현황: 워크넷 이용자를 중심으로. 고용동향분석 1, 93-115.
- 안주엽 (2001). 미국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정: 파트타임과 풀타임. 노동정책연구 1(2), 61-80.
- 어수봉(1994). 한국의 실업구조와 신 인력정책.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오성철 (1989). 고등학생의 포부수준 결정모형 탐색.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병희, 김주섭, 안주엽, 정진호, 남기곤, 류장수, 장수명, 최강식 (2005). 교육과 노동시장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2005-2
- 장상수 (2004). 학력성취의 계급별·성별 차이. 한국사회학 38(1), 51-77.
- 정태화 (1994) 과잉교육 연구의 동향과 시사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 21, 265-286.
- हतोरी तामिओ(服部民夫). (1988). 일본이 본 한국의 기업경영과 재벌. 화평사.
- Alba-Ramirez, A. (1993). Mismatch in the Spanish labor market?. Journal of Human Resources 28(2), 259-278.
- Alba-Ramirez, A., & Blazquez, M. (2003). Types of job match, overeducation and labor mobility in Spain, in Buchel, F., A. de Grip and A. Meitens(Eds), Overeducation in Europe: Current Issues in Theory and Policy. Edward Elgar Publishing, Cheltenham, UK.
- Alexander, K. L. & Eckland, B. K. (1975). Contextual effects in the high school attainment proc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0(3), 402- 416.
- Ayalon, H. & Yuchtman-Yaar, E. (1989).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occupational aspirations: A two-dimensional approach. Sociology of Education, 62(3), 208-219.
- Becker, G (1964) Human Capital,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 Becker, G. (2003). Educational expansion and persistent inequalities of education: Utilizing subjective expected utility theory to explain increasing participation rates in Upper

- Secondary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9(1), 1-24.
- Bogensneider, K. & Steinberg, L. (1994). Maternal employment and adolescents' academic achievement: A developmental analysis. *Sociology of Education*, 67(1), 60- 77.
- Campbell, R. T. (1980). The freshman class of the University of Wisconsin, 1964. *Research in Sociology of Education and Socialization: Longitudinal Perspectives on Educational Attainment*, 1, ed. by A. C. Kerckhoff. Greenwich, CT: JAI Press, 223- 256.
- Collins, R. (1971). Functional and conflict theories of educational stratific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6, 1002-1019.
- Dolton, P., & Vignoles, A. (2000). The incidence and effects of over-education in the UK graduate labour market.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19, 179-98.
- Dore, R. P. (1976). The diploma disease. *Qualification and Development*, George Allen & Unwin Ltd.
- Dougherty, K. J. (1987). The effects of community college: Aid or hindrance to socioeconomic attainment? *Sociology of Education*, 60(2), 86- 103.
- Furlong, A. (1986). Schools and the structure of female occupational aspiration.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7(4), 367-377.
- Hanson, S. L. (1994). Lost talent: Unrealized educational aspirations and expectations among U.S. youths. *Sociology of Education*, 64, 263-277.
- Hauser, R. M. & Anderson, D. K. (1991). Post-high school plans and aspiration of black and white high school seniors: 1976-86. *Sociology of Education*, 64(4), 263- 277.
- Kalmijn, M. (1994). Mother's occupational status and children's schooling.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9(2), 257- 275.
- Lee, V. E., Mackie-Lewis, C., & Marks, H. M. (1993). Persistence to the baccalaureate degree for students who transfer from community college. *American Journal of Education*, 102(1), 80- 114.
- Levine, D. U. & Havighurst, R. J. (1992). *Society and Education*. 8th ed. Boston: Allyn and Bacon.
- Mare, R. D. (1980). Social background and school continuation decision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75(370), 295-305.
- Marini, M. M. & Greenberger, E. (1978). Sex differences in educational aspirations and expectation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15(1), 67- 79.

- McClelland, K. (1990). Cumulative disadvantage among the highly ambitious. *Sociology of Education*, 63(2), 102– 121.
- Peng, S. S. & Fetters, W. B. (1978). Variables involved in withdrawal during the first two years of college: Preliminary findings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the high school class of 1972.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15(3), 361– 372.
- Randour, M. L., Straburg, G. L., & Lipman– Blumen, J. (1982). Women in higher education: Trends in enrollments and degrees earned. *Harvard Educational Review*, 52(2), 189– 202.
- Rumberger, R. W. (1987). The impact of surplus schooling on productivity and wages. *Journal of Human Resources* 22(1), 24–50.
- Sewell, W. H., & Hauser, R. M. (1980). The Wisconsin longitudinal study of social and psychological factors in aspirations and achievements. In *Research in Sociology of Education and Socialization: Longitudinal Perspectives on Educational Attainment*, 1, ed. by A. C. Kerckhoff. Greenwich, CT: JAI Press, 59– 100.
- Spence, M. (1973). Job market signaling.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7.
- Stolzenberg, R. (1994). Educational continuation by college graduat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9, 1042–1077.
- Tsang, M. C., Rumberger, R., & Levin, H. M. (1991). The impact of surplus schooling on worker productivity. *Industrial Relations* 30(2), 209– 228.
- Karabel, J. (1972). Community colleges and social stratification: Submerged class conflict in American higher education. *Harvard Educational Review*, 42(4), 521– 562.
- Wegner, E. L. and W. H. Sewell (1970). Selection and context as factors affecting the probability of graduation from colleg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5(4), part 2, 665– 679.
- Whitaker, D. G., & Pascarella, E. T. (1994). Two– year college attendance and socioeconomic attainment: Some additional evidenc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5(2), 194– 210.
- Wilson, K. L., & Boldizar, J. P. (1990). Gender segregation in higher education: Effects of aspirations, mathematics achievement, and income. *Sociology of Education*, 63(1), 62– 74.